

Industry

Focus

구조적 문제점, 돌파구 찾기

캐피탈사 현황 점검과 대응방안

삼일PwC경영연구원

November 2024



목차

I. 캐피탈사 개요

1. 캐피탈사 개요	03
2. 캐피탈사 특징 및 규제 환경	05

II. 영업 환경: 리스크 Peak out

1. 조달 환경 - 금리 하락에 따른 수혜 차별화	06
2. 사업포트폴리오 변화 및 영향 - 기업 · 투자금융 확대로 금융시장 민감도 상승	08

III. 경영지표 현황 및 전망: 수익성 · 건전성 지표 부진 vs 자본적정성 지표 안정적

1. 수익성 - 부동산PF 정리 본격화로 당분간 부진한 수익성 지속	10
2. 건전성 - 부동산PF 평가기준 강화로 건전성 악화	12
3. 자본적정성 - 선제적 자본 확충, 보수적 영업으로 자본적정성 지표 안정적	14

IV. 위기와 기회: 부동산 PF 손실 부담 지속에 신사업 및 신규시장 모색 중

1. 위기: 부동산PF 리스크 - 위험도 높은 부동산PF 보유, 부동산 경기 회복 수혜 제한적	16
2. 기회: 신사업 · 신규시장 진출 - 디지털화 가속, 글로벌 진출 확대로 성장동력 발굴	19

V. 시사점 및 전략적 제언

21

VI. Appendix

24

들어가며

캐피탈사(社)는 흔히 신용시장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캐피탈사는 예금과 같은 수신기능이 없이 차입, 채권 발행 등과 같이 조달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므로 금리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스·할부금융부터 중·저신용자 대상 가계대출, 기업대출, 부동산 금융과 유가증권 및 대체투자 등 투자금융까지 전 사업영역이 산업 경기, 개인 체감 경기,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화를 온전히 맞닥뜨리는 업권이기도 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기에 호황기에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수익성과 건전성지표의 변동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캐피탈사들은 현재 코로나 시기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입었던 수혜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메랑이 되어 격랑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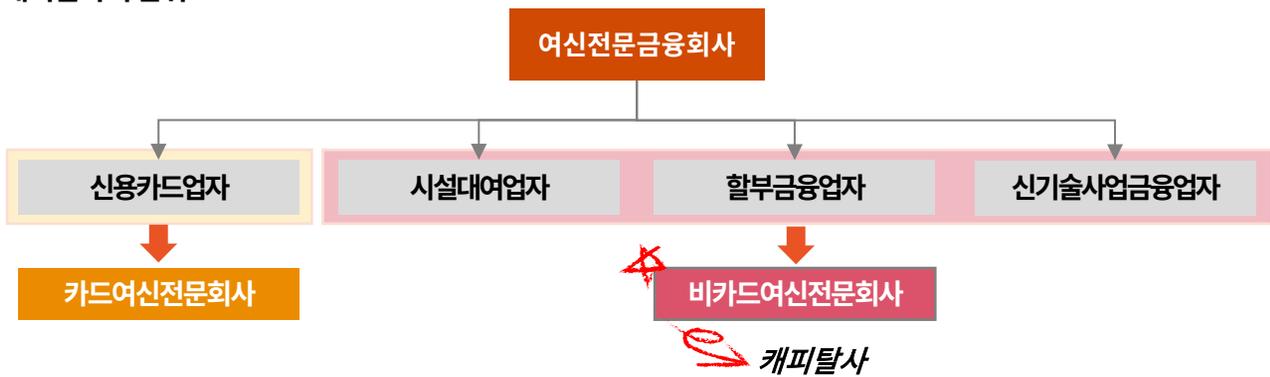
본 보고서에서는 캐피탈사의 사업모델, 캐피탈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캐피탈사의 현황 및 이슈를 살펴보고 향후 업황 개선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I-1. 캐피탈사 개요

■ 캐피탈사의 정의 및 범위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사를 말함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벤처캐피탈)이 해당되며, 이 중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비카드여신전문회사를 통상 ‘캐피탈사’로 지칭

캐피탈사의 범위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 주요 사업영역

- **전통적 사업영역인 리스·할부금융 등 물적금융 중심에서 일반 대출(가계/기업), 투자 금융(부동산 금융, 대체투자 등) 신기술사업금융 등으로 사업 범위 확장**, 전체 사업영역에서 부동산PF 대출 및 투자성 자산,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비중이 증가하게 됨

캐피탈사 주요 영업자산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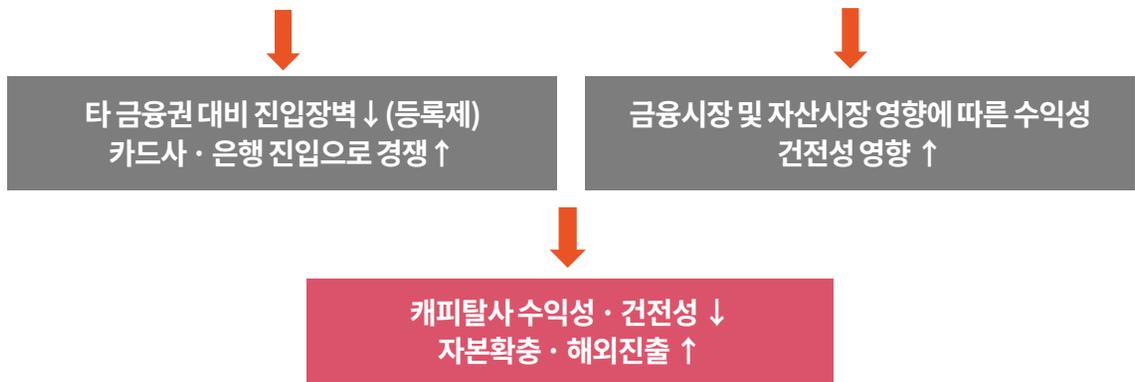
물적 금융	할부금융 리스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다건화 되어 영업비용 및 관리비용이 큼 • 일반적으로 운용수익률 낮음 • 물적금융 특성상 현금흐름 일정하고 예측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부실 가능성이 낮고 부실의 사전 예측 용이함
	가계대출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다건화 되어 영업비용 및 관리비용 큼 • 일반적으로 운용수익률이 가장 높음 • 경기민감도가 높으며, 소액다건화 되어 있으므로 차주의 익스포저 집중도 낮음 • 일정 현금흐름 유입되므로 부실 및 현금흐름 예측성은 부동산금융 대비 높음
대출/ 투자 금융	부동산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의 거액투자 특성상 운영비용 부담측면에서 유리, 비우량 부동산 금융자산의 운용수익률 높음 • 경기 민감도가 높고, 일시상환구조로 부실의 사전예측 가능성이 낮음

Source: NICE신용평가, 삼일PwC경영연구원

I-1. 캐피탈사 개요

사업 환경 Overview

사업영역	물적 금융(기존 사업)	투자 금융/대출
영업자산 내 비중 (’24.6월)	33%	67%
영업자산	리스	일반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 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주로 기업에게 자동차, 산업기계기구, 건설기계 등을 대여하며, 운수·운반기기가 대부분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금융 팩토링: 매출채권 매입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
	할부금융	투자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가 재화·용역 구입 시, 할부금융사가 구입 자금을 대여해주고, 고객이 일정 기간 분할 상환하는 금융서비스 자동차·가전 등 고가내구소비재 중심 (취급 실적의 97%가 고가내구재 중심) 리스와 유사하나 대상 자산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PF, 경영권 지분담보대출 등 (기업대출 포함)
		신기술사업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증시 상황에 따른 이익변동성 ↑
		유가증권, 사모출자, 대체투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국내외 대체투자 등



Source: 여신금융협회, 전자공시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I-2. 캐피탈사 특징 및 규제 환경

■ 캐피탈사 특징

- 수신기능 없이 차입,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사업 영위하므로 자금조달비용이 실적에 직결되어 금리변동에 대한 영업 환경 민감도가 특히 높음
- 낮은 자본 규제 강도: 타 금융업권 대비 자본규제와 같은 규제 강도 낮음
- 캐피탈 업무 영역의 고유성 낮아 경쟁 심화 → 카드사, 은행 등도 자동차 금융 등 리스 할부금융 분야에 진입하여 캐피탈사와 경쟁
- 조달 금리 측면에서 카드사 대비 불리: 캐피탈사 영업자산의 고수익 추구 불가피 → 금융시장 변동성, 경기에 상대적으로 취약

캐피탈사 사업 영역 및 특징

낮은 진입 장벽 (등록제)	낮은 자본 규제 강도	금융시장: 금리 변동성 노출	자산 시장, 부동산 경기 영향 확대
카드사 대비 불리한 규제 환경	리스 할부금융 경쟁 심화	조달 금리 변동성	부동산PF 부실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비카드 여전사 등록제 vs 카드사 허가제) • 카드사 대비 낮은 레버리지 규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 은행의 자동차 금융시장 진출 • 현대차, 중고차 인증업 진출 • 단기렌탈업 진출 불가 • 산업경기/소비심리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채 대비 높은 금리 수준 • 부동산PF 리스크로 신용스프레드 하락세 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PF 대출 확대로 영업자산 규모 확대 • 중소형 캐피탈사 중심으로 부실 부동산PF 대출 영향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 분석대상 회사 선정 기준

■ 선정기준

본 보고서는 캐피탈 업권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주요 캐피탈사의 재무자료를 집계·분석

- 분석대상: 국내 주요 평가기관 3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 중 2곳 이상의 신용등급 존재하는 회사
- 대형사·중소형사 분류 기준
 - 신용등급, 금융지주계열 및 캡티브(Captive) 기반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
 - 신용등급 AA- 이상, 총자산 5조원 이상,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회사는 대형사로, 그 밖의 회사는 중소형사로 분류
 - 평가기관별로 상이한 신용등급 보유 시 보수적으로 낮은 신용등급 적용

■ 분석대상 회사(28개사)

- 대형사: 현대캐피탈(주), 하나캐피탈(주), 케이비캐피탈(주), 신한캐피탈(주), 우리금융캐피탈(주) 등 12개사로 주요 은행금융지주계열 및 제조대기업 계열사로 구성됨
- 중소형사: 한국투자캐피탈(주), (주)애쿠온캐피탈, (주)아이엠캐피탈 등 16개사

II-1. 조달 환경

영업환경 점검

■ 영업 환경 리스크는 Peak Out

- 채권 발행 및 차입을 통해 사업하는 특성상 현 금융시장 고려시 영업 환경은 바닥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조달금리 수준 및 부동산대출 비중에 따라 회사별 영업환경 개선은 차별화될 것

조달 환경 점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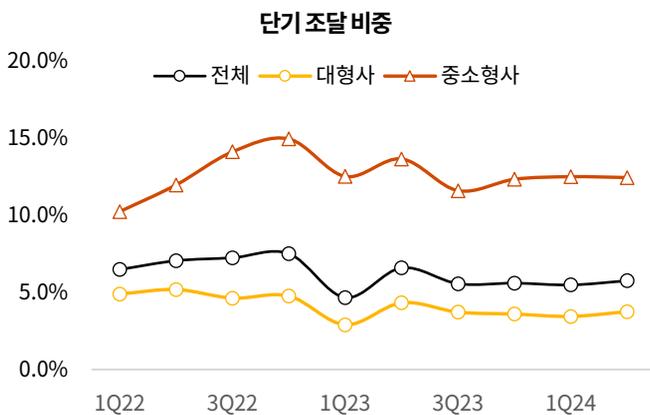
■ 조달 현황: 단기조달 비중은 '20~'21년 수준 하회

- 캐피탈사 조달 상황은 금리 인상시기 대비 개선되었으나 대형사와 중소형사 조달측면의 온도차가 큼
- '24년 6월말 기준 분석대상 캐피탈사 단기자금(단기사채+단기차입금)조달 비중은 4.4%로 '22년 6.6% 대비 하락
- 대형사의 단기 조달 비중은 '22년말 기준 4.4%에서 '24년 반기 기준 2.8%까지 하락함. 반면 중소형사의 단기 조달 비중은 '22년도 말 기준 13.0%에서 '24년도 6월말 기준 9.8%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대형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만기 도래액: '24~'25년도 부채 만기도래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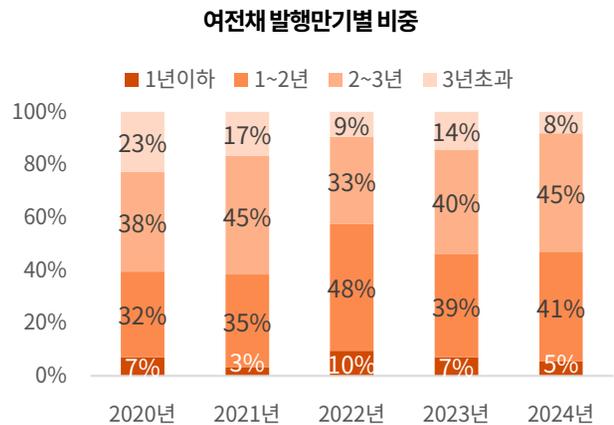
- 2년 미만 여전채 발행액이 '21년 17.7조원에서 '22년, '23년에 각각 25.3조원, 25.8조원 규모로 증가
- 전체 조달액 중 만기 2년 미만 여전채 비중이 '21년 31.3%에서 '22년 55.9%, '23년 40%으로 '21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24~'25년까지 상황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대형사/중소형사 단기 자금 조달 비중 격차 큼



Source: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여전채 만기별 비중 ('24~'25년에도 만기 부담 존재)



Source: 연합인포맥스, 한국은행, 삼일PwC경영연구원

II-1. 조달 환경

■ 조달 금리: 전반적인 금리 하락세로 조달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 및 수익성 개선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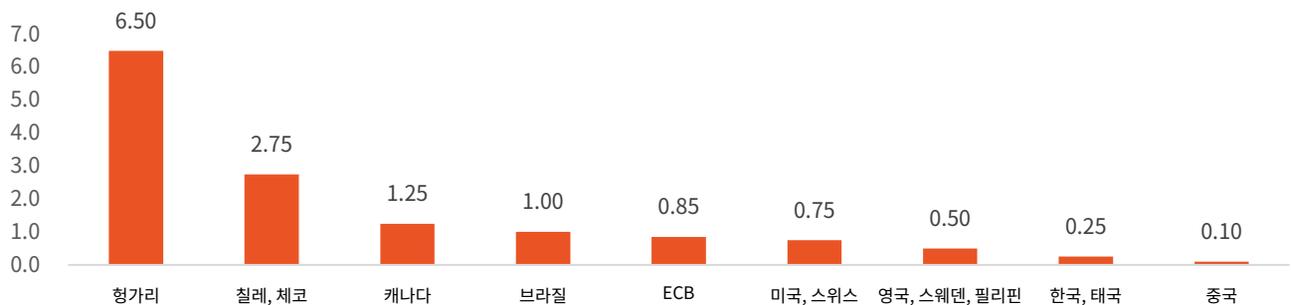
- 미국 Fed와 ECB, 영국 등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한국은행도 10월 11일 38개월만에 25bp 기준금리 인하
- 또한 한국 채권시장이 FTSE WGB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조달금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WGBI 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영국의 FTSE Russel 이 운용하는 채권지수로 연기금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핵심 지수
- 예상 효과: 국내 채권시장에 외국인 자금 유입 예상됨에 따라 채권 수급 상황 개선. 금리 하락 및 원달러 환율 안정화 효과 전망(유입규모 약 80~90조원, 외국인 자금 장기 투자 효과)

■ 여전채 신용 스프레드 차별화로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개선 및 조달 환경 수혜는 회사별로 차별화될 전망

- 우호적 조달 환경에도 그 수혜 정도는 차별화 전망. 신용등급별 신용 스프레드 하락폭에 격차 존재
- '24년 3분기 이후 신용등급 AA급 여전채의 국고채 3년물 대비 일평균 신용스프레드는 48bp로 과거('16~'20년 평균 46.8bp) 수준으로 회귀
- 반면, '24년 3Q 국고채 3년물 대비 신용등급 A급 여전채 신용스프레드는 236bp로 과거('16년~'20년) 평균 161bp와 비교시 여전히 높은 수준

글로벌 중앙은행 금리 인하폭 ('24.11.1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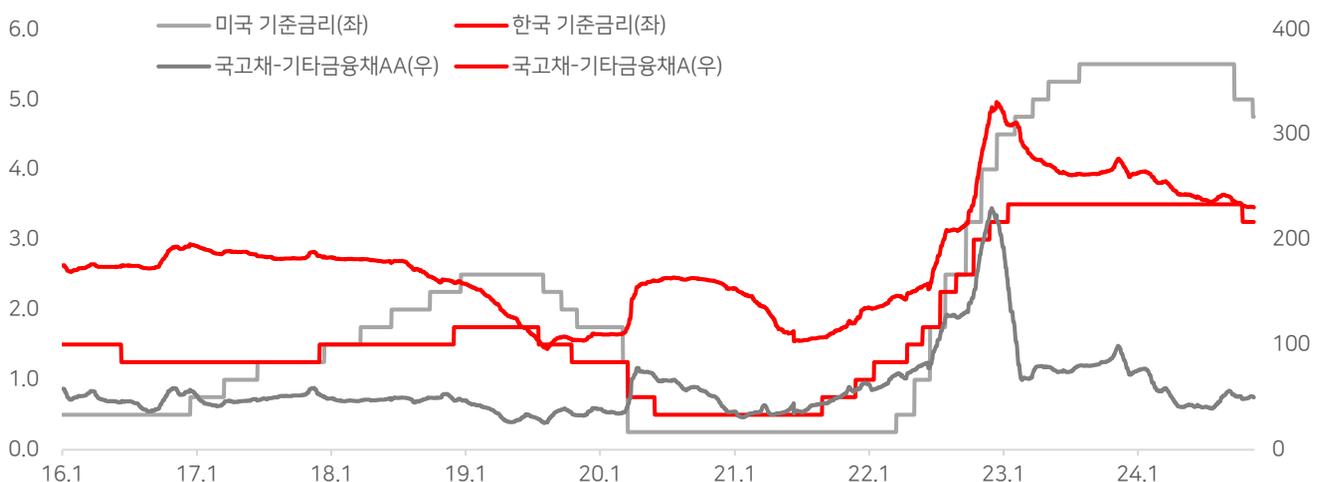
(단위: %p)



Source: 연합인포맥스, 언론자료, 삼일 PwC경영연구원

여전채 신용 스프레드 - 신용등급별 차별화

(단위: %, bp)



Source: 연합인포맥스, 삼일PwC경영연구원

II-2. 사업포트폴리오 변화 및 영향

포트폴리오 변화 방향: 물적금융 → 기업/투자금융

■ 금융권내 경쟁심화 및 사업여건의 상대적 불리함에 따라 고수익 추구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높여왔으나 최근에는 부실 및 연체율이 높은 부동산 및 기계대출 분야의 비중을 축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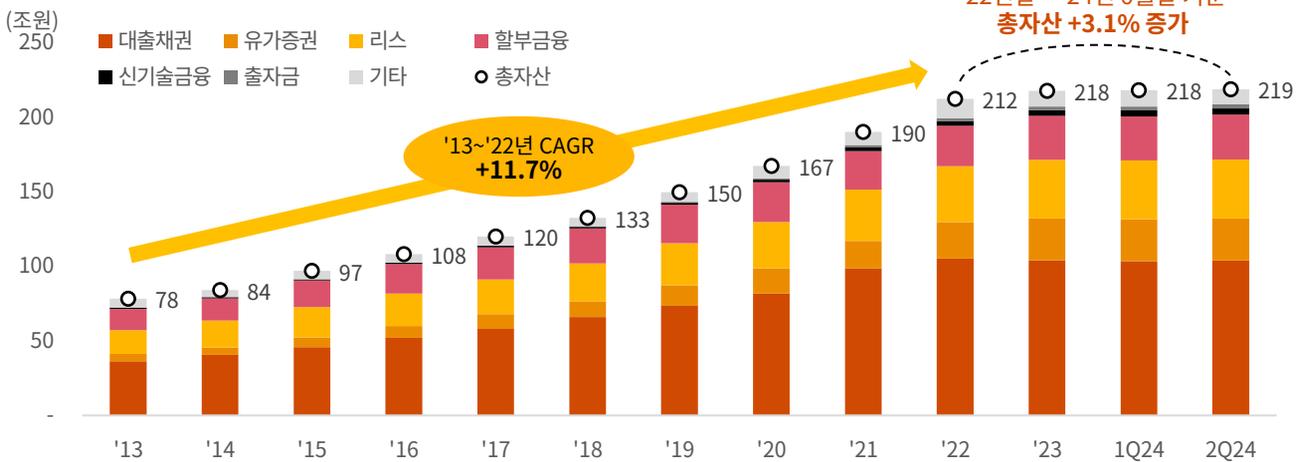
■ 캐피탈 업권 자산 증가율 둔화

- 캐피탈사 총자산은 '13~'22년까지 고성장세를 기록하며 연평균 11.7% 성장함. '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기업대출, 특히 부동산PF관련 대출과 투자성 자산 확대로 전체 자산 성장을 견인함
- '22년부터 자산성장세 둔화되어 '24년 6월 말 기준 분석대상 28개사의 총자산은 3.1% 성장에 그침. 동기간 대형사의 총자산성장률은 +6.0%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는 6.2% 감소함

■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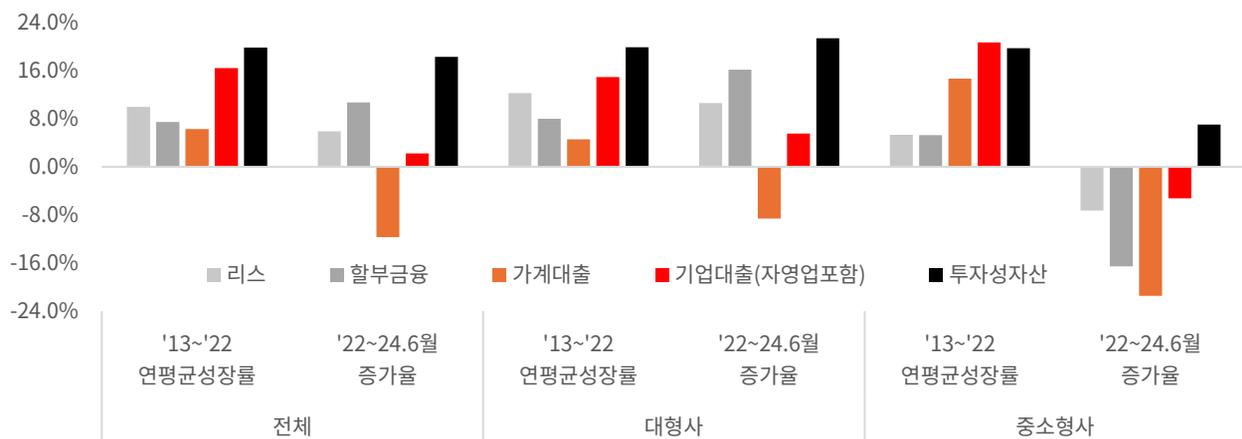
- 1) 카드사가 자동차 할부금융에 공격적으로 영업하며 리스·할부금융 부문 경쟁이 심화되었고,
- 2) 저성장에 따라 자동차와 기계 설비 등 산업 경기 부진하여 리스 부분의 성장성이 둔화되었으며,
- 3) 상대적으로 조달금리 열위에 있던 캐피탈사들이 고수익 운용이 요구되었기 때문임

분석대상 캐피탈사 총자산 추이



Source: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분석대상 캐피탈사 영업자산 부문별 증감률 - 기업 대출 및 투자성 자산 증가



Source: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II-2. 사업포트폴리오 변화 및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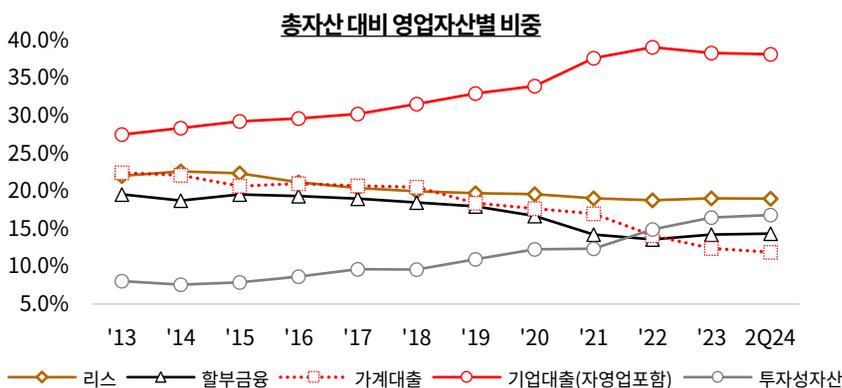
■ 영업자산별 비중 변화 (물적금융 축소 vs 기업금융·투자금융 확대)

- 리스·할부금융자산 비중은 '13년 42%에서 '24년 상반기 33%로 축소, 동 기간 기업대출(자영업 대출 포함)은 27.5% → 38.2%, 투자성 자산은 8.1% → 16.8%로 두 배 이상 증가
- **기업대출 확대는 부동산PF 대출이 견인**: 주요 캐피탈사 대출채권내 부동산PF 대출 비중은 '14년 7%에서 '22년 22%로 3배 이상 증가. 팬데믹 당시 부동산 개발시장 활황과 함께 제2금융권의 PF 대출 취급 증가

■ 대형사 - 중소기업사 포트폴리오의 변화로 Risk-Return Profile 괴리

- '22년 이후 대형사와 중소기업사 자산성장률 괴리 발생 원인은 **두 그룹간 포트폴리오 비중 차이에 기인**
- **대형사**: 기업대출, 투자성자산이 자산 성장을 견인하였지만, **리스 등 기존 자산의 성장률도 고르게 나타나며 비교적 고른 포트폴리오를 유지함** (리스·할부금융자산 비중은 '13년 38% → '24년 상반기 35%)
 - 대형사는 대부분 금융지주계열 혹은 제조업 기반 캡티브를 보유한 회사로 금융계열사간 협력 혹은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사업 최적화를 실시, 계열사간 시너지 발휘가 유리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중소형사**: 자금조달 측면에서 불리하여 고위험·고수익 사업 추구. **기존의 리스·할부금융에서 부동산금융을 포함한 기업대출 및 투자성자산으로 영업 확장**(리스 할부금융 비중 '13년 54% → '24년 6월말 27%로 급감)
 - 고위험 고수익성 자산 확대로 인해 유동성 확장시기 수익 호조를 보였으나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경기 둔화로 운용수익률 훼손 및 영업을 크게 위축

분석대상 캐피탈사 영업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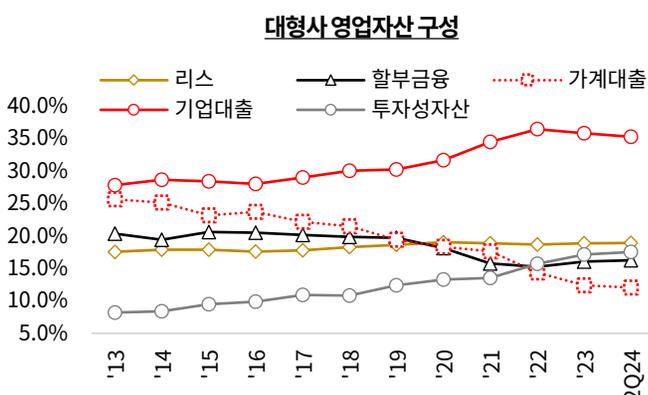
Source: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대출채권내 부동산PF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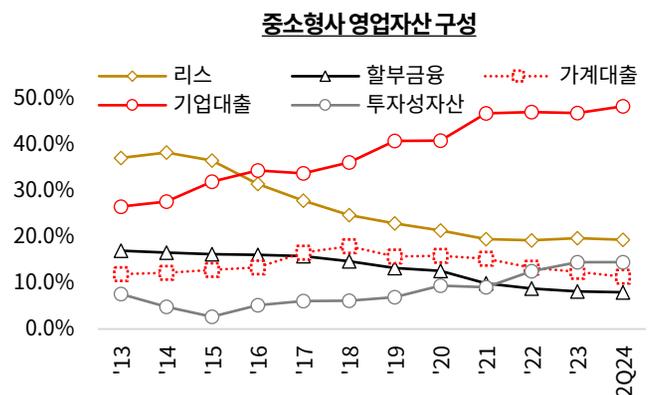


Source: 한국기업평가, 삼일PwC경영연구원

그룹별 캐피탈사 총자산 대비 영업자산의 비중



Source: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III-1. 수익성

수익성 급감했으나 최악국면 통과, 포트폴리오에 따라 기업별 차별화 발생

■ 대형사 수익성 악화 일단락 vs 일부 중소형사 수익성 부진 지속

■ 금리인상 · 부동산금융부실에 따른 실적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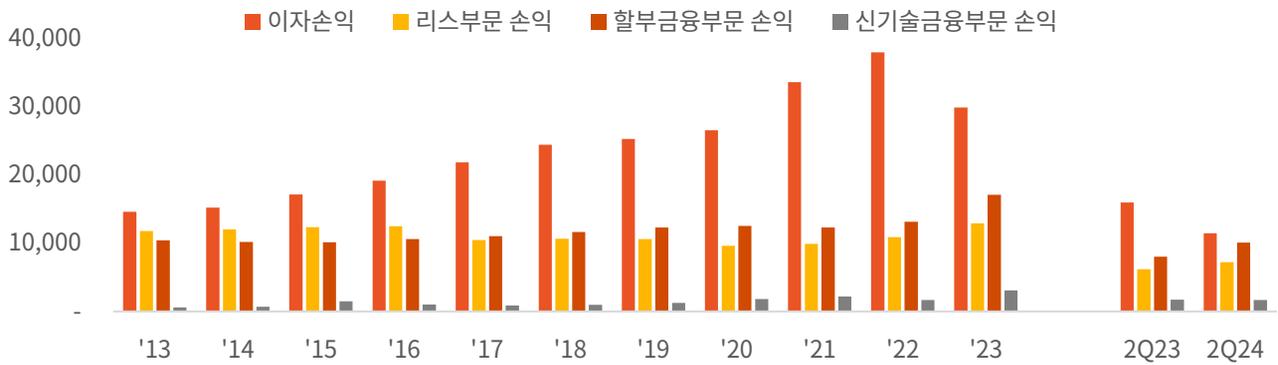
- 금리가 인상된 '22년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부동산PF 관련 대출 부실 확대, 캐피탈업권의 실적 악화로 이어짐
- 24.6월말 기준 리스·할부금융부문 수익 개선에도, 이자부문 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8.4% 감소함

■ 당기 순익 감소세

-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살펴보면 '13~'22년까지 연평균 14%씩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분석대상 캐피탈사 순이익은 전년대비 '23년에 22% 급감, '24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7% 감소한 1.68조원에 그치며 업계 불황 지속
- 금리상승, 업황 부진에 따른 이자역마진, 대출채권 대손상각비 등이 반영되며 수익성 위축

분석대상 캐피탈사 부문별 순익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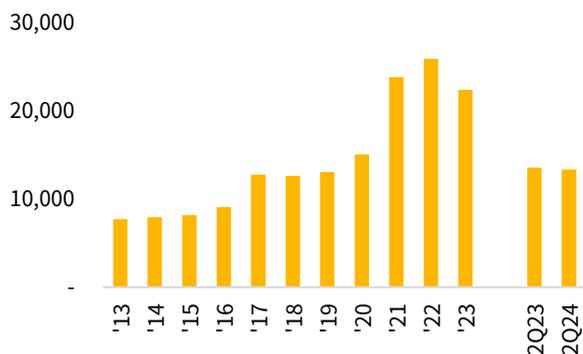
Source: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 고위험 포트폴리오 중심의 중소형사 이익 급락

- 상대적으로 고위험·고수익 포트폴리오를 추구한 중소형사 수익성 둔화폭 컸음. '23년 이익감소율은 대형사 14%, 중소형사는 44%, '24년 상반기 기준 대형사는 전년동기대비 2% 감소에 그쳤지만 중소형사는 22% 감소함
- '24년 10월 금리 인하로 조달환경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중소형사의 경우 PF 부실사업장 정리 본격화시에 수익성 저하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
- 다만 부동산PF 정리 이후에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는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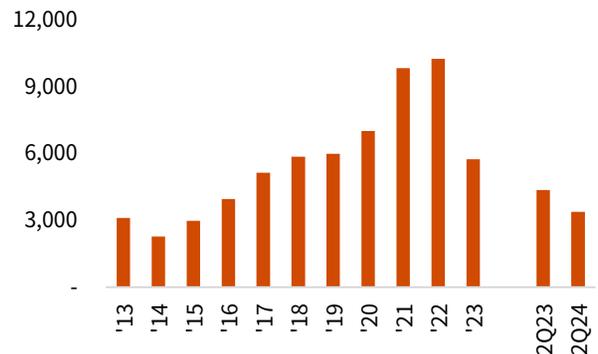
대형사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중소형사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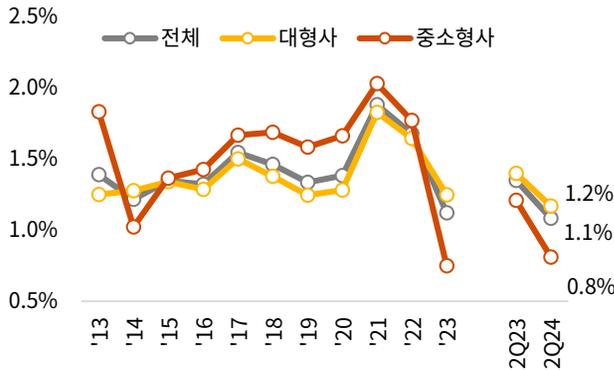


Source: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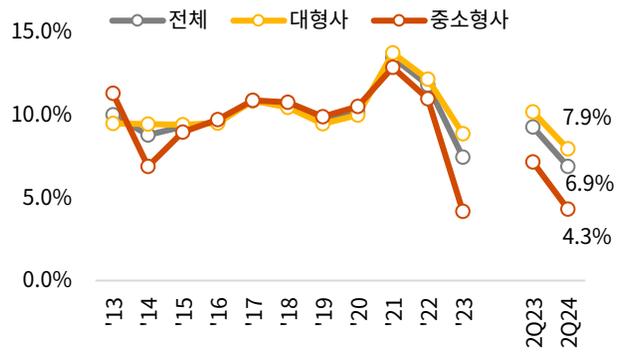
III-1. 수익성

- 총자산이익률(ROA): '13 ~'22년까지 평균 1.46% 수준 지속되었으나 '23년 1.12%, '24년 6월말 기준 1% 초반대로 하락, 대형사보다 중소기업사의 ROA가 대체로 더 높게 유지되던 이전의 추세도 역전됨
- 자기자본이익률(ROE): '13 ~'22년 평균 10.4%에서 '23년 7.4%로 하락, '24년 6월 기준 6.9%까지 하락. 이는 한국 기업들의 지난 10년 평균 ROE 8%를 밑도는 수치임. 그룹별로는 '24년 상반기 기준 대형사 7.9%, 중소기업사 4.3%로 나타남

분석대상 캐피탈사 ROA



분석대상 캐피탈사 R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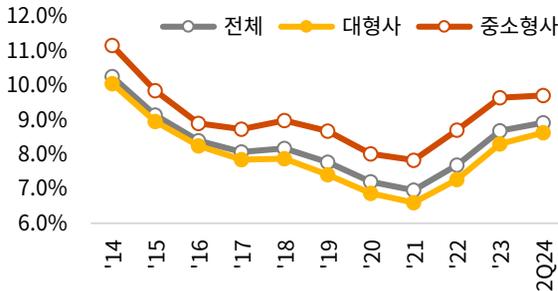


Source: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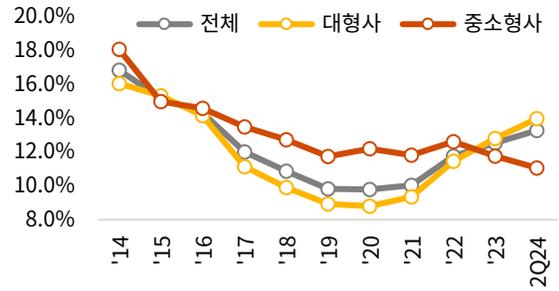
■ 물적금융 수익률 개선 vs 대출채권 수익률 정체

- 부문별 운용자산별 수익률 추이를 보면, '22년 이후 대출채권 부문은 정체. 리스·할부금융자산은 회복세 기록
- 신기술금융자산은 '19~'20년, 저금리,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수익률 우수했으나 금리 상승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되어 수익성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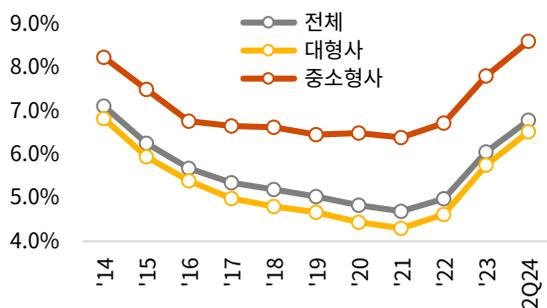
대출채권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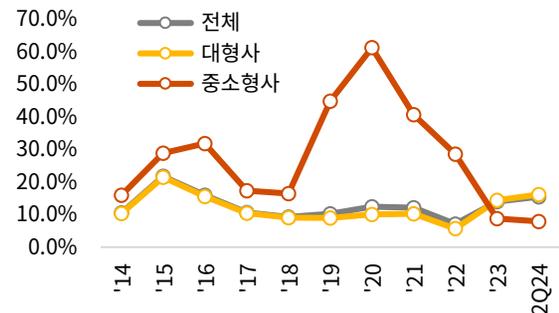
리스자산 수익률



할부금융자산 수익률



신기술금융자산 수익률



(*) 부문별 이익률은 부문별 수익을 부문별 영업자산의 기초·기말 단순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

Source: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III-2. 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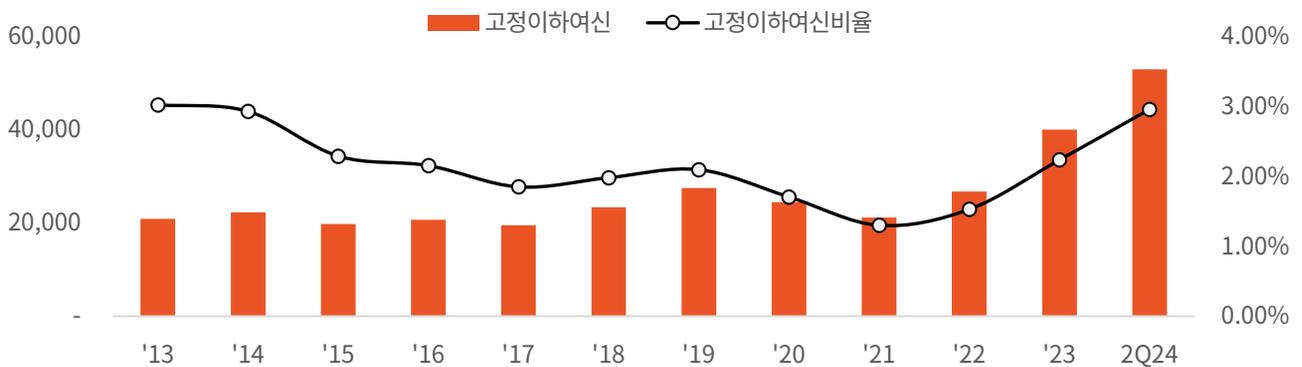
건전성 악화, 중소형사 중심으로 고정이하여신 비중 급증하였으나 부동산 PF 손실 반영 후 건전성 악화는 일단락 전망

■ 연체채권 증가·PF 평가기준 강화에 따른 부실자산 규모 확대

- 분석대상 캐피탈사의 자산건전성은 '21년 이후 크게 저하
- '24년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5조3천억원으로 '21년 말(2조1천억원) 대비 150% 증가,
- 건전성분류대상 총채권액 대비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2년말 1.3%에서 '24년 6월말 기준 3.0%로 상승, 과거 '13~'22년 평균 2.1%를 크게 상회
- 1개월 이상 연체채권 규모도 '21년 1조2천억원에서 '24년 6월 말 3조2천억원으로 160% 급증
- 연체채권 증가 뿐 아니라 '24년 정부가 평가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정한 점도 건전성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 기존에 정상사업장으로 분류된 3회 이상 만기연장 사업장은 개정된 평가기준 하에서 '유의' 또는 '부실우려'로 재분류하며 관리 강화됨

분석대상 캐피탈사 고정이하여신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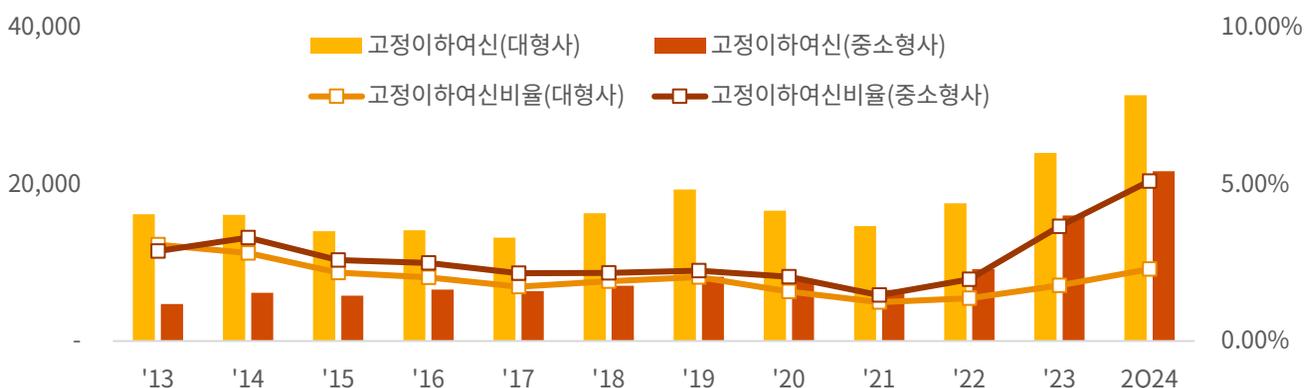
Source: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 중소형사 고정이하여신 ↑

- 자산건전성 악화는 중소형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총채권 대비 고정이하여신 비중은 중소형사(5.1%)가 대형사(2.29%)를 상회.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건전성 괴리 발생

그룹별 고정이하여신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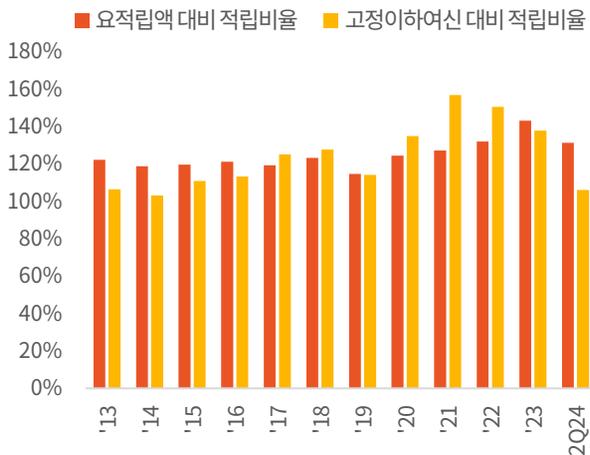
Source: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III-2. 건전성

■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 존재하나 부동산PF 사업장 손실 반영 이후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 일단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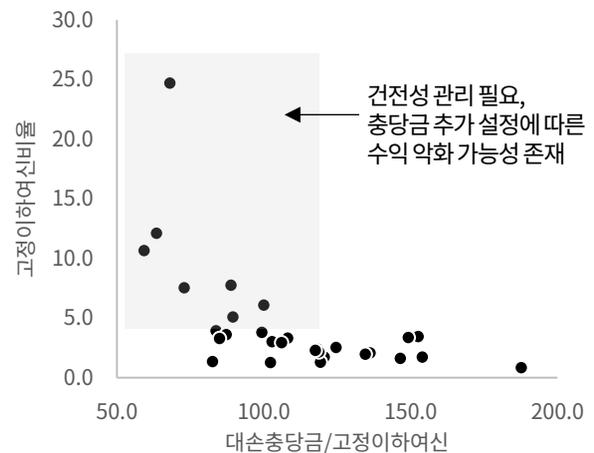
- 대손충당금 적립 증가에도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급증하며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비율(충당금커버리지 비율)은 '24년 상반기 106%를 기록, '21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 중소형사의 경우 그 비율이 90%까지 하락
- 정부의 PF 구조조정 가속화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캐피탈 업권의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 부담 존재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 악화 예상. 특히 부동산금융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의 경우 실적 및 건전성 악화가 확대될 수 있음
- 업계 전반으로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및 부실우려 부동산PF 사업장의 정리 이후에 건전성 지표 및 수익성 악화는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금리 인하와 부동산가격 반등으로 사업성 개선 및 경공매 낙찰가율 반등 등으로 손실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다만 과거와 같은 저금리나 부동산 호황 진입을 예측하기 어렵고 예측의 불확실성이 높아 부동산PF 사업장 정리 지연 및 추후 부실사업장 보유 지속될 경우 다시 건전성이나 수익성 훼손을 시킬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질서있는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분석대상 캐피탈사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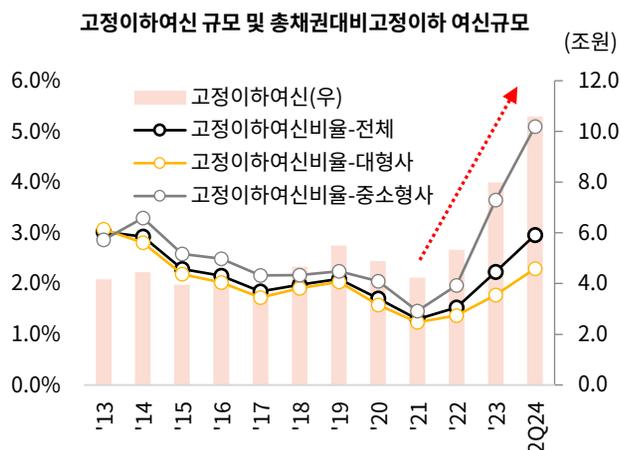


Source: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캐피탈사 고정이하여신비율, 충당금커버리지 비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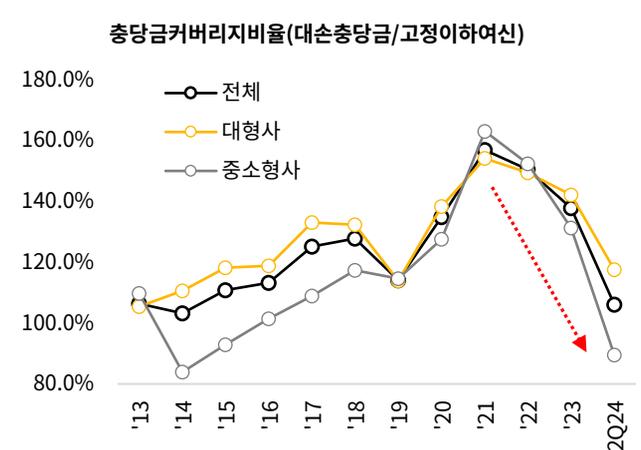


중소형사의 고정이하여신 비중 급증



Source: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부실자산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III-3. 자본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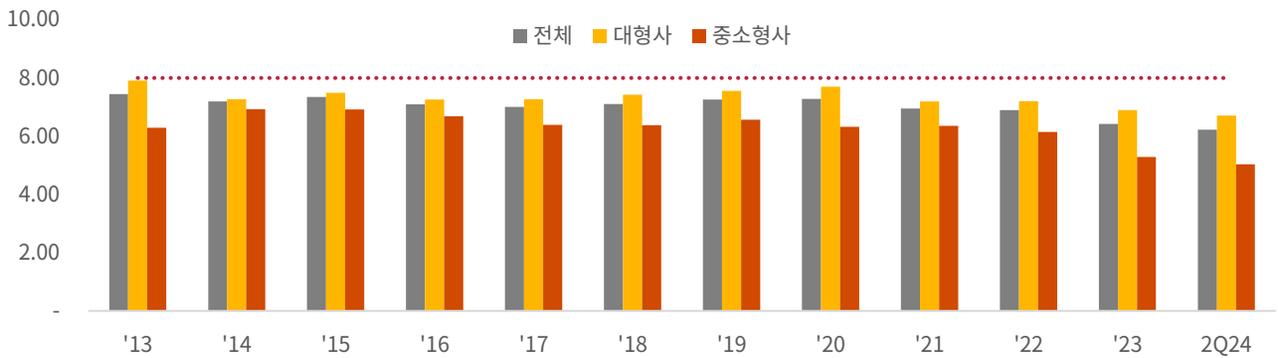
업계전반의 리스크 관리 및 자본 확충으로 자본적정성 지표 안정적 → 추후 적극적 영업 확대 여력 존재

■ 저수익·침체국면 下 자본적정성 안정화

-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은 '24년 6월말 기준 6.2로 '21년 이후 하락세, '21년 이후 7.0배 밑으로 떨어져 법정 규제 배수대비 여유로운 수준 ('24년까지 9배 이내, '25년 이후 8배 이내)
- 다만, 이 같은 레버리지비율 하락세는 캐피탈 업권 침체에 따른 영업 위축으로 자산증가세 둔화 및 자본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건전한 지표 하락세는 아님
- 그룹별로 '24년 상반기 기준 대형사 6.71배, 중소형사 5.03배로 집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과 자본조달능력이 우수한 대형사가 중소형사보다 높은 레버리지비율을 유지 중임
- 조정자기자본비율도 최근의 자본확충에 따라 빠르게 상승하면서 분석대상 캐피탈사 전체로 '24년 상반기 기준 16.8%, 대형사는 15.5%, 중소형사는 21.1%를 기록, 두 그룹 모두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충분한 여유가 있는 만큼 법정 배수 및 비율(감독규정상 7% 이상 유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자산 확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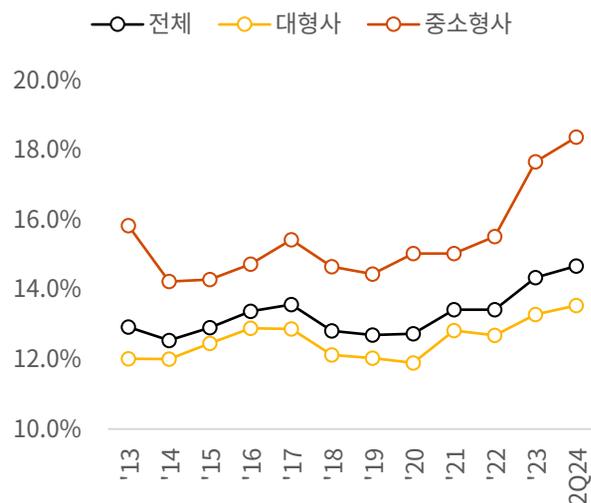
분석대상 캐피탈사 레버리지비율(자산/자본)

(단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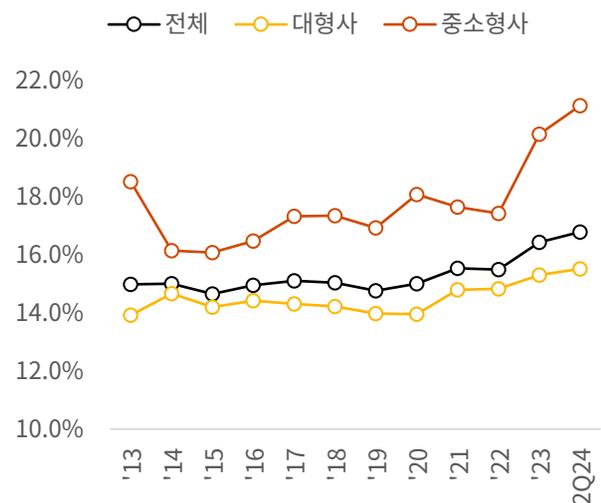
Source: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단순자기자본비율



Source: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조정자기자본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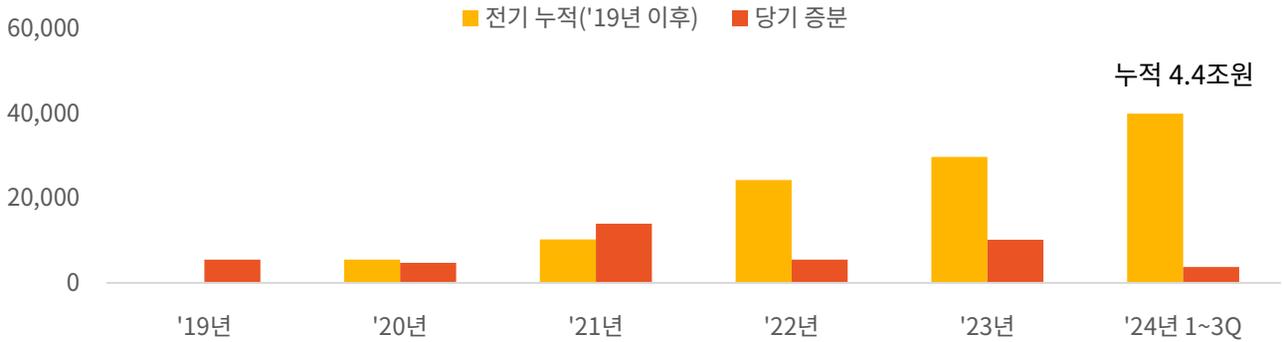
III-3. 자본적정성

■ 건전성 저하에 대응한 자본확충 실시

- 건전성 저하, 레버리지 비율 규제 강화에 대비해 자본확충 확대
- 현행 레버리지비율은 9배 이내 유지, '25년에는 8배 이내로 축소에 따른 선제적 자본 확보 실시함

분석대상 캐피탈사 주요 증자내역('19년 이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기준)

(단위: 억원)



회사명	시기(납입)	금액(억원)	회사명	시기(납입)	금액(억원)
(주)아이엠캐피탈	'19년 5월	500	현대커머셜(주)	'22년 03월	500 ²⁾
	'20년 11월	500		'22년 08월	500 ²⁾
	'23년 6월	500		'23년 02월	1,000 ²⁾
(주)에큐온캐피탈	'19년 8월	300 ¹⁾		'24년 03월	800 ²⁾
	'22년 6월	420 ¹⁾		'24년 06월	400 ²⁾
비엔케이캐피탈(주)	'21년 7월	1,000		(주)아이비케이캐피탈	'20년 12월
	'22년 5월	500	키움캐피탈(주)	'19년 11월	500
신한캐피탈(주)	'21년 6월	1,500		'21년 3월	500
엠캐피탈(주)	'20년 12월	748		'23년 8월	500
	'22년 5월	507	디비캐피탈(주)	'22년 3월	574
오케이캐피탈 (주)	'20년 2월	1,000	롯데캐피탈(주)	'22년 7월	500 ²⁾
케이비캐피탈(주)	'19년 3월	500	메리츠캐피탈(주)	'19년 6월	500
	'20년 03월	500		'21년 9월	2,000
	'21년 12월	2,000		'24년 6월	2,000
한국캐피탈(주)	'19년 11월	737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	'21년 11월	2,000
	'23년 10월	1,000 ²⁾	'22년 3월	2,000	
한국투자캐피탈(주)	'19년 12월	500	우리금융캐피탈(주)	'21년 11월	2,000
	'21년 12월	500	제이비우리캐피탈(주)	'20년 5월	1,000
	'23년 03월	4,400		'21년 5월	500
	'23년 10월	800	하나캐피탈(주)	'19년 3월	2,000
	'24년 09월	600		'21년 7월	2,000
			'23년 11월	2,000	

1) RCPS 포함

2) 무보증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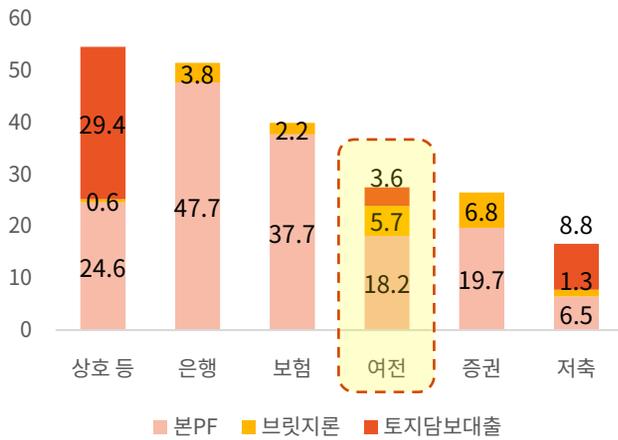
Source: DART 각사 주요사항보고서, 삼일PwC경영연구원

IV-1. 위기: 부동산PF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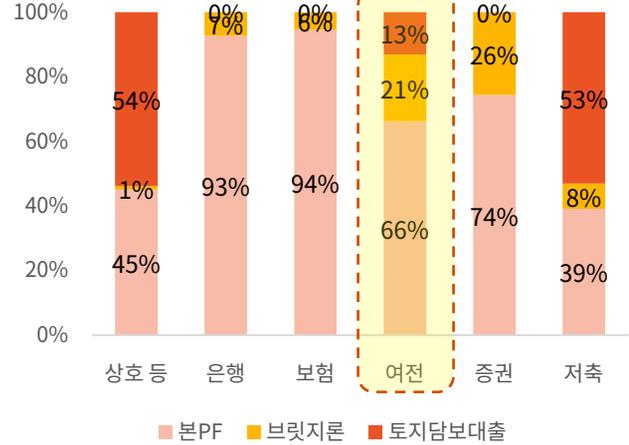
■ 캐피탈 업권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 최근 업권 불황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PF 익스포저 규모는 27.5조원
- 정부가 발표한 '24년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216.5조원(채무보증 포함), 이중 전체 여전업계의 비중은 약 12.7% 차지

부동산PF 익스포저 규모 (2Q24) (단위: 조원)



부동산PF 익스포저 비중 (2Q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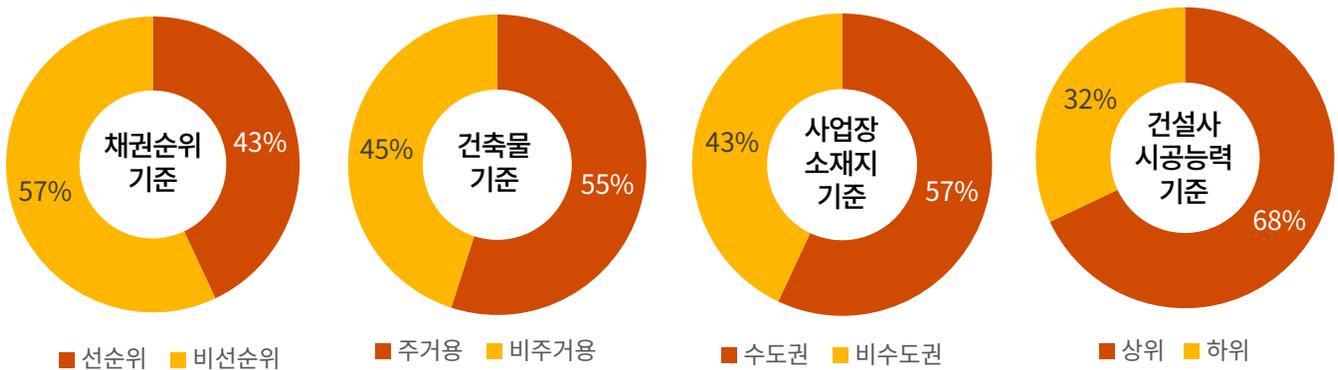


Source: 금융위원회, 삼일PwC경영연구원

■ 여전사 PF 특징: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PF 보유

-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에서 부동산 본 PF대출 보다는 브릿지론과 토지담보대출의 리스크가 더 큼
- 높은 브릿지론 비중: 여전사의 브릿지론 비중은 21%로 증권사에 이어 금융업권 내 두번째로 높은 수준. 토지 담보대출도 사실상 브릿지론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그 비중은 34%까지 확대
-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의 부동산대출채권 보유
 - 대상 건축물은 비주거용이 45%, 수도권 대비 침체 리스크가 높은 비수도권 사업장 비중은 43%에 달함
 - 변제 순위 또한 중·후순위 위주임. 중순위 이하의 비중이 57%로 높아 부실 발생에 더욱 취약

여전사부동산PF 익스포저의 특성별 비중



Source: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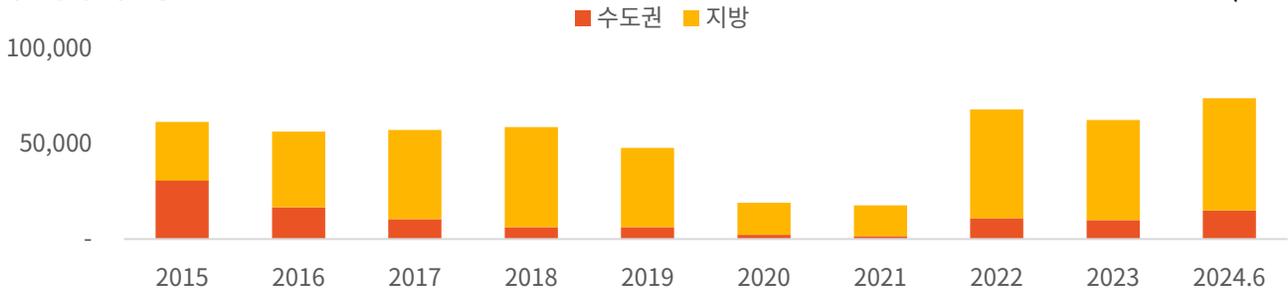
IV-1. 위기: 부동산PF 리스크

■ 부동산 경기의 지역별 양극화로 캐피탈사 부담 가중

-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침체가 겹쳐 PF 부실 확산. 부동산 시장이 '23년 후반부터 반등이 나타났으나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며 '24년 6월 말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 4,037호 이룸. 이 중 5만 8,986호 (80%)가 비수도권 물량임. 캐피탈사들이 비 수도권 지역 사업장 비중이 높아 업권 부담이 높은 상황

미분양주택현황

(단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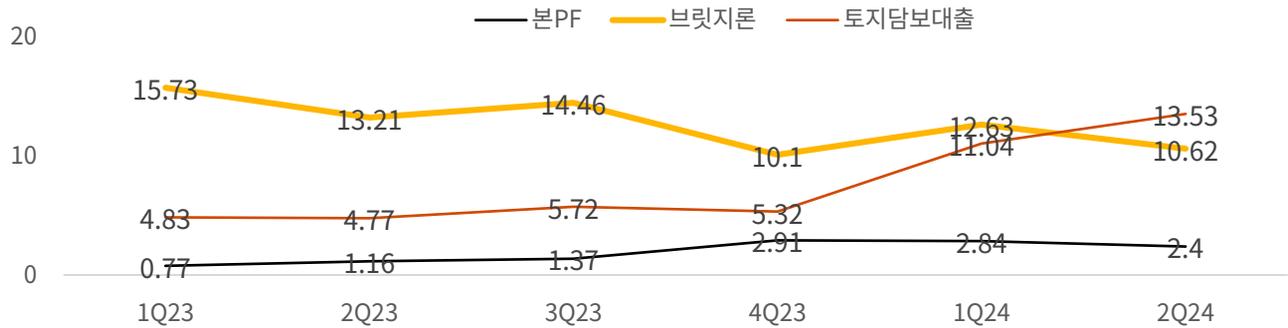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 여전사 브릿지론 연체율은 '23년 이후 줄 곧 10% 상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24년 상반기 13% 상회

여전사 PF대출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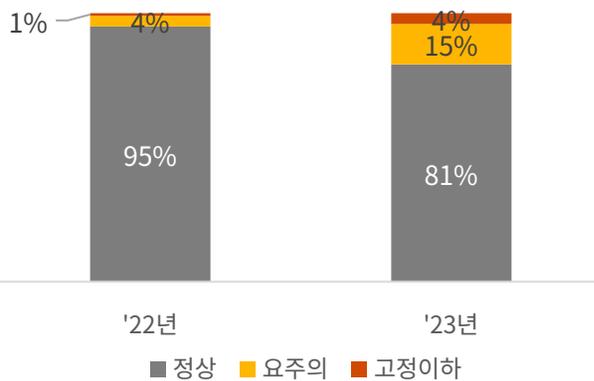
(단위: %)



Source: 금융위원회,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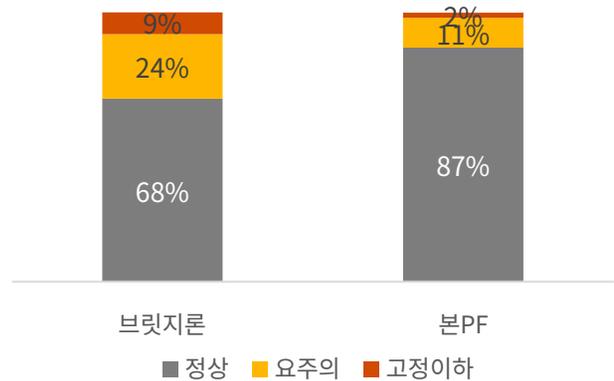
캐피탈 부동산PF 연도별 건전성

(단위: %)



캐피탈 부동산PF 유형별 건전성('23년)

(단위: %)



Source: NICE신용평가

IV-1. 위기: 부동산PF 리스크

■ 정부의 연착륙 대응방안

- 위기감 고조로 정부는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및 대응에 나섬
- 주요내용 중 금융권의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강화(현행 3단계→ 4단계로 세분화),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 유도. 이와 함께 PF 정상화펀드, 한시적 규제완화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 지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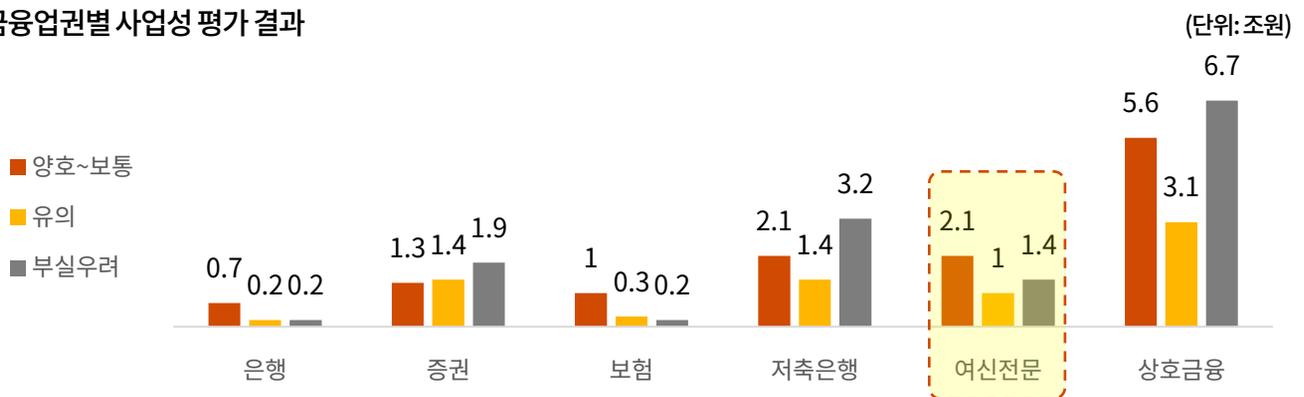
■ 부실사업장 정리에 따른 손실인식 가속화 전망

- '24년 6월 말 기준 연체,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3회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개선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성 평가 진행
- '24년 6월 말 기준 여전사의 1차 평가대상 사업장(4.5조원 규모) 중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저 2.4조원. 반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액은 2.2조원으로 잠정 집계, 위험대비 총당금규모가 충분치 않음. 사업성 평가와 부실사업장 정리 지속으로 향후 총당금 추가 적립부담 가중 및 손실 인식 가속화 전망
- '24년도 부동산 가격 회복세가 나타났으나 사업장의 특성 및 반등세 둔화로 수익성 악화 당분간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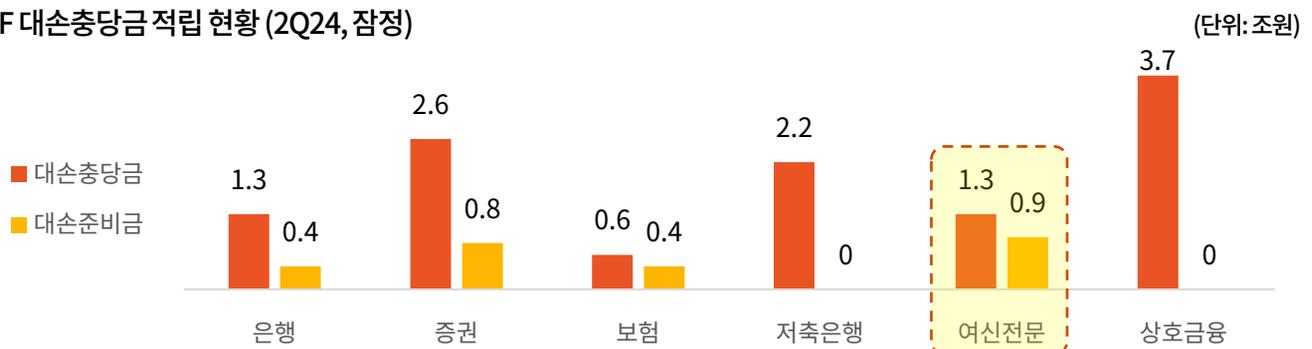
강화된 사업장 평가등급별 평가결과 및 조치방안

사업성 평가결과	사업성 평가결과 사후관리 기준	사후관리 점검·지도
양호	정상 진행	자율 관리
보통	신규 자금공급, 만기연장, 자율협약 등을 통한 지원	
유의	재구조화, 자율매각 추진	계획서 징구·점검
부실우려	상각,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금융업권별 사업성 평가 결과



PF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2Q24, 잠정)



Source: 금융위원회, 삼일PwC경영연구원

IV-2. 기회: 신사업·신규시장 진출

■ 기존 사업 경쟁 격화

- 전통적인 캐피탈 사업부문(리스·할부금융)에서는 경쟁 격화로 캐피탈 업권 입지 위축
-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서는 카드사가 캐피탈사 위협. 캐피탈과 달리 카드 결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아 대출 받는 고객 입장에서 유리. 여기에 인터넷은행까지 자동차대출시장에 진출하며 경쟁구도는 더욱 심화

■ 신사업 확대·디지털 혁신 추구

- 부동산PF 영향으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며 영업자산 확대가 제한적이고 자동차 금융부문에서의 경쟁격화로 위기극복 방안 모색 중
- 대표적으로 불황에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NPL 시장 공략, 의료기기 등 기계장비 리스 부문에서의 산업영역 확장 등 사업다각화, 그리고 고객 편의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디지털 혁신을 이루고자 마이데이터사업 진출 및 플랫폼 사업 강화 등임

국내 주요 캐피탈사의 최근 사업 동향

구분	회사명	주요 내용
사업 다각화	케이비캐피탈(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정관상 사업목적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추가 -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탑재 • 플랫폼 비즈니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핀테크 기업 팀윙크(대출비교플랫폼 '알다'의 운영사)의 지분 95.95%를 약 80억원에 인수
	현대커머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채권(NPL), 부실자산 등에 투자하는 SS&D(Special Situation and Distressed) 시장 공략 -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펀드 참여
	(주)아이비케이캐피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IBK기업은행이 조성한 1천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펀드에 공동출자(100억원) 및 펀드 운용(GP) 담당 -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기술 보유 기업 발굴·육성
	하나캐피탈(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스케어 금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GE헬스케어와 영상의료장비·헬스케어 분야 금융서비스 제공 협약 - '23년 오스템임플란트와 치과장비분야 금융서비스 제공 협약
	현대캐피탈(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데이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자동차 자산관리 특화 마이데이터 서비스 탑재한 '현대캐피탈 앱 2.0' 출시 - 고객 맞춤 차량 추천, 신용점수 관리 서비스 제공
디지털 혁신	우리금융캐피탈(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금융 통합 플랫폼 '우리WON카'에 자동차 정보, 대출 상품 비교, 매매 플랫폼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비대면화 추진
	하나캐피탈(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렉트 금융서비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이 직접 상품을 가입하는 다이렉트 채널 구축 및 플랫폼 확장성 증대
	현대캐피탈(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 모빌리티 금융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자동차금융 플랫폼 '카앤에셋' 출시 - AI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콘텐츠 제공

Source: 언론보도, 삼일PwC경영연구원

IV-2. 기회: 신사업·신규시장 진출

■ 해외 시장 진출 확대

-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로 인해 해외시장 개척 움직임 확대.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 혹은 캡티브 시장과의 시너지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해외진출이 활발함

■ 동남아 시장 및 중양아시아 진출 활발

- 동남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수 및 낮은 금융 접근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주목받고 있음.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동남아 지역 진출이 활발해지며 상대적으로 금융인프라가 취약한 중양아시아 진출도 확대
- 동남아시아는 금융권 디지털 전환기를 맞고 있어 지급결제, 대출, 핀테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창출되는 중
- 베트남 시장, 인구 1억 명 돌파로 풍부한 잠재 수요 존재
 - 현금 이용률이 높고 금융 인프라가 낙후된 시장이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비현금결제 장려 정책으로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성장 중. 베트남 정부는 6월 16일을 ‘현금 없는 날’로 지정하고 ’25년까지 현금 사용률 8% 미만 달성 목표 수립
 - 진출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주), 롯데캐피탈(주), 미래에셋캐피탈(주), 산은캐피탈(주)

■ 그룹 차원에서 사업 연계성 목적의 해외진출

- 현대캐피탈(주)의 인도네시아 진출: 인도네시아는 현대자동차의 동남아 생산·판매거점 위치. 2억7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나 인구 대비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높지 않아 투자 잠재력 높음
- 현대캐피탈(주) 독일, 영국, 캐나다 등으로도 시장 확장: ’24년 하반기 중 유럽지역에 대한 2,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며 해외사업 강화할 계획

- **금융당국 지원 강화:** ’23년 6월 ‘여전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캐피탈사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캐피탈사의 해외진출이 더욱 탄력을 얻게 될 전망

국내 주요 캐피탈사의 해외점포 현황

회사명	진출형태	진출국
비엔케이캐피탈(주)	사무소	미얀마
	현지법인	라오스,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주)아이엠캐피탈	사무소	미얀마
	현지법인	라오스, 캄보디아
(주)아이비케이캐피탈	현지법인	미얀마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사무소	미얀마, 베트남
	현지법인	미얀마
케이비캐피탈(주)	현지법인	라오스, 인도네시아
롯데캐피탈(주)	현지법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래에셋캐피탈(주)	현지법인	베트남, 인도
산은캐피탈(주)	현지법인	베트남
하나캐피탈(주)	사무소	미얀마
	현지법인	미얀마, 인도네시아
현대캐피탈(주)	지점	싱가포르
	현지법인	독일, 브라질,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Source: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각사 반기보고서(’24.06), 삼일PwC경영연구원

V-1. 시사점

■ 조달환경, 수익성 및 건전성은 업체별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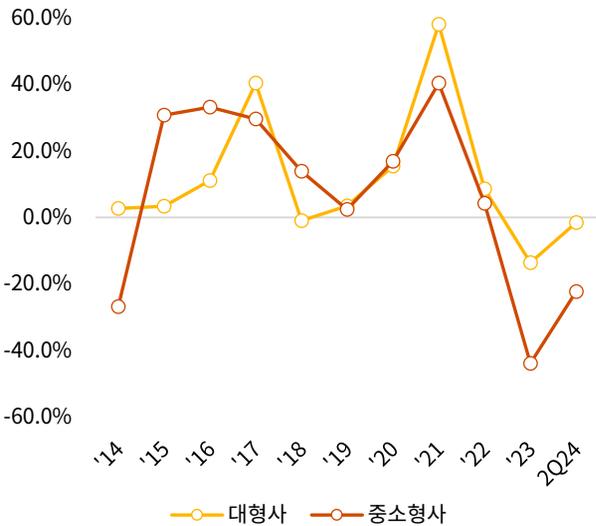
- 사업 포트폴리오, 특히 부동산경기 노출도가 크고 그중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열위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 조달 금리,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 대형 상위사와의 격차 확대
- A급 이하 여전채의 신용스프레드 하락 제한적 : AA급 이상 여전채 스프레드는 금리 인상 이전 수준 회복한 반면 A급 이하 여전채 신용스프레드는 과거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 (p.7, II-1. 조달 환경 참조)
- 대형사 - 중소기업간 당기순이익 감소폭 여전히 큼('24년 반기 기준): 대형사 -1.5%yoys vs 중소기업 -22.3%
- 대형사 - 중소기업간 건전성 지표 격차 확대('24년 6월말 기준): 대형사가 중소기업 대비 총당금 커버리지 비율은 28.0%p 높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8%p 낮음
- 캡티브 보유 혹은 관계사의 지원 및 협력이 원활한 캐피탈사의 경우, 타업권과의 경쟁 심화(카드, 은행 및 인터넷은행의 자동차 금융 진출)되는 현상하에서 더 유리한 입지

■ 캐피탈사 매출 증가, M&A도 발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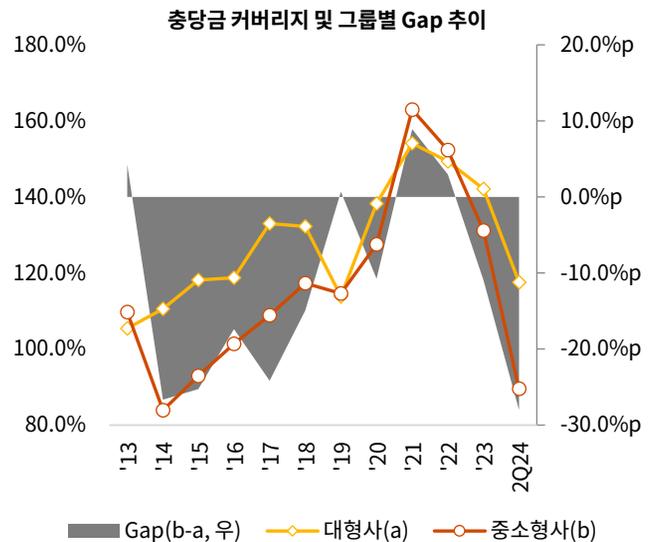
- 경쟁심화,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로 인해 이미 신종자본증권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 확충이 이어짐. 그러나 당분간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표의 추가악화 예상되어 자본확충이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자본확충과정에서 대주주 변경 등 **캐피탈사 매출 증가 및 M&A도 발생 예상**. 특히 은행금융지주계열에서 비은행금융 포트폴리오 확대나 사업포트폴리오 정비 차원에서 M&A 증가 예상됨

순이익 감소폭은 그룹간 차별화

(단위: %)



그룹별 총당금 커버리지비율의 Gap 확대



Source: NICE신용평가

V-2. 전략적 제언

제언 ①

적극적 리스크 관리

자산 - 부채 듀레이션 갭 축소를 통한 유동성 리스크 축소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사업 안정성 추구

■ 자산 - 부채 듀레이션 갭 축소

- **금리 하락기를 통한 채권 발행만기 확대: 단기 사채, 전단채, 단기차입 등 단기 부채를 장기로 차환하여 조달 안정화 및 부채 듀레이션 확대 필요**
- '22년 이후의 자금 경색 및 부동산시장 불황 영향에 따라 캐피탈채에 대한 수요 급감 및 금리 급등 → 조달 난항에 따른 단기채 혹은 단기 차입위주로 자금 조달. 반면 영업자산 특히 부동산 금융의 경우 그 특성상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기반한 대출이므로 부동산시장 호황기에는 문제가 안되나 불황기에는 사업성 저하로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채권이 장기화되며 캐피탈사 유동성에 문제를 유발시킴
- 최근 금리 하락세로 '24년 9월 회사채 발행 급증(회사채는 전월비 59.9%, 금융채는 66.5% 증가), 주 목적은 차환용으로 금리 하락에 따라 차환을 통해 조달비용을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됨
- **추후 금리 하락시기에 부채 듀레이션을 증가시켜 안정적인 조달을 실시해야 할 것**

■ 포트폴리오 다변화

- 부동산 저시황에서의 부동산PF 대출 혹은 가계 대출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자산 집중도를 낮추고, 고른 포트폴리오 분포
 - **기존사업의 판매채널 확장:** 디지털화 및 비대면 채널 확대(하나캐피탈의 렌탈상품 라이브커머스 판매, KB캐피탈 - 중고차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 거래 및 차량관리 서비스 실시)
 - **리스 및 렌탈 부문 사업 영역 확대:** 특정분야의 리스 영업 강화(하나캐피탈 의료기기 리스 영업 강화)
 - **신규사업 확대:** 부수업무등록을 통한 보험대리점 진출 허용 요구
 - **신규시장 진출:** 금융지주 혹은 캡티브가 있는 경우 관계사 시너지 추구. 해외 시장 확대하여 성장성이 높은 동남아 시장 등의 신흥시장 진출 및 관계사 지역 동반진출

V-2. 전략적 제언

제언 ②

정부 규제 개혁 및 완화 필요

타금융업권 대비 조달측면에서 불리하고, 자동차 금융 및 개인신용대출 부문의 경쟁 심화로 캐피탈사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를 위한 정부 규제 완화 요구

■ 포트폴리오 위험을 고려한 자본규제 적용

- 현행 자본 규제 지표인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자본)은 '24년도부터 10배에서 9배로, '25년도부터는 8배로 강화하여 관리할 예정이나 영업자산의 위험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일괄적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 영업자산 위험도 편차가 큰 캐피탈사 특성상 자본적정성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움
- 위험기반 자본규제시 리스·할부금융, 기업대출, 투자 등 영업자산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대형사는 레버리지 비율이 현행 비율보다 높아지게 되어 적극적인 영업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음. 특히 해외 시장 진출이나 신규사업시에 적극적인 영업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면 부동산PF 대출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의 경우 영업자산의 위험도를 과소평가하게 되므로 레버리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 초래
- 이에 따라 **영업 확대 및 적절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위험기반 자본규제 도입 추진 필요**

■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정부 규제 완화

- **부수업무 영역 확대를 통해 사업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당국 규제완화 필요**
- **캐피탈 업계 및 학계에서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 요구 지속**
 - 여신전문업법에서는 캐피탈사들이 보험대리점 업무가 가능하나 보험업법에서는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진출이 실질적으로 어려움
 - 현재 캐피탈사를 제외하고 은행 증권 저축은행 카드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토스-토스 인슈어런스, 네이버파이낸셜-NF보험서비스, 카카오페이-KP보험서비스, 보맵-보맵파트너 등)는 보험대리점 사업에 진출해 있음
 - 캐피탈사들이 자동차 금융, 기계 장비·설비 등 물적금융을 다루는 만큼 이와 연계한 보험 상품 판매시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 특히 관계사들과 연계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 편의 제공 가능함에 따라 사업 시너지 발생 예상
- **구독경제 보편화로 렌탈 취급범위 확대 필요**

VI-1. 용어 설명 및 규제 현황

용어 설명

용어	설명	Source	
조정자기자본비율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100	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시행세 칙 [별표4]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조정자기자본	기본자본+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공제항목		
조정총자산	총자산-(현금+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 예금+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공제항목+부외항목		
고정이하채권비율	(고정이하분류채권등/총채권등)×100		
고정이하분류채권등	총채권 등의 자산건전성분류에 따라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액		
총채권등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에서 유가증권, 투자, 미사용약정 및 미수이자를 제외한 금액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채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상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요주의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고정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회수의문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 채권
	추정손실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 채권
대손준비금	IFRS에 따라 여전사가 적용한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서 정한 충당금 적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캐피탈사 주요 규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구분	캐피탈사	신용카드업
설립	등록제	허가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8배 이내('24년까지 9배 이내)	8배 이내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7% 이상	8% 이상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100% 이상	100% 이상
1개월이상 연체채권 비율	해당사항 없음	10% 미만

Source: 한국신용평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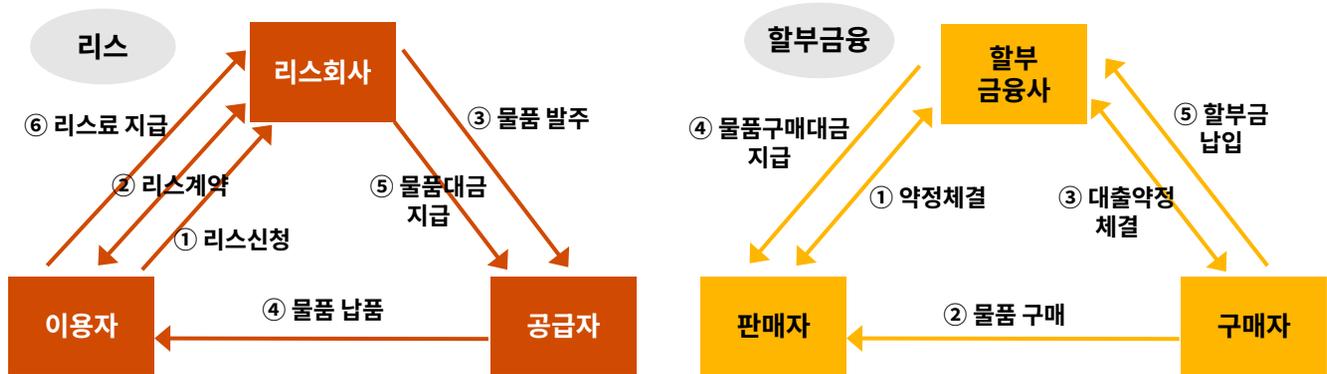
건전성 분류	기업대출	개인 할부금융 및 가계대출	부동산PF
정상	0.5% 이상	1% 이상	2% 이상(원만기 미경과) 3% 이상(원만기 경과)
요주의	1% 이상	10% 이상	10% 이상
고정	20% 이상	20% 이상	30% 이상
회수의문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추정손실	100%	100%	100%

Source: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VI-2. 캐피탈사 물적금융 구조 및 취급 실적

■ 리스/할부금융사 사업 흐름

취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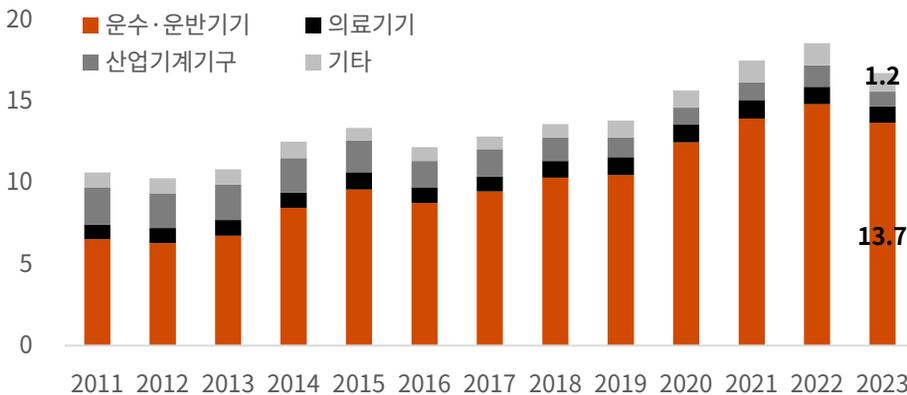
Source: 금융시장의 이해(이요섭)

Source: 여신금융협회

■ 리스/할부금융 실적

물건별 리스실적(실행기준)

(단위: 조원)



물건별 리스 실적

- '23년 리스 실적 위축
- 물건별로는 운수·운반기기 비중이 82% (13.7조원)로 가장 높으며 의료기기(6%, 1조원), 산업기계기구(5%, 0.9조원)가 뒤를 이음

할부금융 취급실적

(단위: 조원)



할부금융 취급 실적

- '23년 취급 실적은 '20년 실적 회복
- '23년 취급실적에서 자동차와 가전 등 내구재 비중이 97% (24조원)로 대부분을 차지

Source: 여신금융협회, 삼일PwC경영연구원

Author Contacts

이 희 정 수석연구위원

삼일PwC 경영연구원

heijung.lee@pwc.com

안 정 효 책임연구원

삼일PwC 경영연구원

jeonghyo.ahn@pwc.com

삼일PwC경영연구원

최 재 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Business Contacts

Financial Service

김종산 Partner

jong-san.kim@pwc.com

박동욱 Partner

dong-wook.park@pwc.com

김대길 Partner

dae-gil.kim@pwc.com

김경구 Partner

kyoungkoo.kim@pwc.com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411W-RP-069

© 202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